

울산시, 올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37% 달성 총력

등록 2026.05.26 09:28:36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민·관 합동 현장 영업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거동 공동주택 현장.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3.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과 경기 지역 대형 건설사 본사 6곳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목표 하도급률을 37% 달성으로 정했다.

시 공무원 3명과 지역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영업팀은 26일 우미건설과 한화를 시작으로 27일 아이에스동서, SM삼환기업, 현대건설, 28일 '삼성물산'을 차례로 방문한다.

영업팀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급 경영진을 직접 만나 지역 건설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하도급 참여 확대와 상생 협력 강화를 적극 요청한다.

또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안한다.

시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혜택 부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하도급 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시장 표창 등 맞춤형 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건설사-지역 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